

‘열아홉 순정’부터 66년 노래 여정 이제 마칩니다



가수 이미지, 서울 세종문화회관서 마지막 콘서트

‘섬마을 선생님’·‘동백 아가씨’ 등 현대사 아우른 히트곡 무대 선보여 “전통가요 사라질까 외로웠던 시간 팬 은혜에 감사 말씀 외 보낼 말 없어”

“더 없이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합니다. ‘은혜를 많이 입고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엘레지의 여왕’ 이미지(84)는 66년 노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흐트러짐이 없었다. 곳곳에 선 채로 감정에 복받치지 않고 또박또박 팬들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건넸다.

이미지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마지막 콘서트 ‘전통 가요 현정 공연-맥(脈)을 이음’에서 “가요 생활을 오래 하며 고난도 많았지만 지금 너무 행복하다”며 “팬 여러분께 은혜를 입은 한 사람으로서 그 은혜에 어떻게 감응(感應)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이외에는 더 보낼 게 없다”고 무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또 “저는 이렇게 걸어온 길이 오래됐지만 굉장히 어려웠다. 외롭고 고달픈 일이 많았다”며 “이 전통 가요를 어떻게 끝까지 지켜야 할지, 저의 대(代)가 끝나면 이 전통 가요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마음이 굉장히 외로웠다”고 일평생 헌신한 전통 가요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미지는 함께 무대에 오른 후배들에게 전통 가요의 바통을 넘겨준다는 고별 공연의 취지를 거론하며 “초청에 응해줄까 했는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해 다행”이라며 열린 미소도 지었다.

그는 지난달 이번 공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신곡 녹음도 하지 않고 콘서트도 열지 않겠다고 발표해 세간에 놀라움을 안겼다.

붉은색 막이 오르고 단아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 중앙에 등장한 이미지는 이날 공연에 잘 어울리는 ‘노래는 나의 인생’으로 관객을 맞이했다. ‘아득히 머나먼 길을 따라 뒤돌아보면은 외로운 길 / 비를 맞으며 힘 한 걸 헤쳐서 지금 나 여기 있네~’

이미지가 지난 66년 세월을 되돌아보는 듯한 첫 소절을 부르자 무대 좌우에서 후배 가수 주현미, 조항조, 김용빈, 정서주가 합류했다.

이미지는 후배 가수들과 함께 진심을 꼭꼭 눌러 담아 ‘나와 함께 걸어가는 노래만이 나의 생명’이라고 노래했고, 그가 단단한 고음으로 노래를 마무리하자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미지는 ‘은퇴’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훌륭한 후배 가수들이 많은데, ‘옛날에 어떤 노래가 어떤 식으로 불렀다’는 것을 조연할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다”며 “그런데 은퇴라고 이야기를 해 놓으면, 조연하러 TV 인터뷰에 나갈 때 ‘은퇴해 놓고 화면에 또 나온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은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괴롭다”고 설명했다.

이미지는 이날 데뷔곡 ‘열아홉 순정’을 비롯해 ‘황혼의 부르스’, ‘기러기 아빠’ 등 직접 선곡한 대표곡을 절절한 목소리로 들려줬다.

그는 감기에 걸려 목음이 나오는 컨디션에서도 다부진 목소리로 데뷔곡의 세련된 리듬을 정확히 짚어냈다. 66년이 흘렀어도 ‘보기만 하여도 울렁’하는 소녀의 옛된 마음이 고스란

히 전해졌다.

‘황혼의 부르스’와 ‘기러기 아빠’ 무대에서는 애달픈 한의 정서가 관객 한명 한명의 가슴에 박혔다. ‘산에는 진달래 들엔 개나리’라는 소박한 가사도 그의 구슬픈 목소리를 거치니 가슴 아린 사연이 가득한 산하(山河)가 펼쳐지는 듯했다.

공연에서는 후배 가수들이 ‘흑산도 아가씨’, ‘여로’, ‘황포돛대’ 등 이미지의 대표곡을 부르는 시간도 마련됐다.

‘전통 가요는 우리나라의 가슴 아픈 역사와 함께하는 노래’라는 이미지의 지론에 따라 일제 강점기(황성 옛터), 8·15 해방(귀국선-해방된 역마차), 6·25 전쟁(전선야곡) 등 한국 현대사를 노래로 되돌아보는 코너도 있었다. 이미지는 이 가운데 ‘가거라 삼팔선’을 후배 가수들과 함께 불렀다.

이미지는 최고 히트곡 ‘동백 아가씨’를 비롯해 데뷔 50주년 기념곡 ‘내 삶의 이유 있음은’과 대표곡 ‘섬마을 선생님’을 마지막으로 긴 노래 인생을 마무리했다.

관객들은 이들 노래를 함께 부르며 이미지에 호응했고, 그는 노래를 끝낸 뒤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서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미지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노래하지 않으면 대중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후배들에게 꼭 해주고 싶다”고 후배 가수들을 향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연합뉴스

세계무대에서 지워지는 K무비

칸영화제 초청 ‘0편’…팬데믹 후 산업 침체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세계 최고 권위의 영화제인 칸국제영화제가 올해 한국 장편을 한 편도 초청하지 않으면서 충무로에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영화계에선 코로나19 이후 침체의 늪에 빠진 한국 영화 산업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하는 한편 ‘K-무비’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선 신진 창작자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 26일 칸영화제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다음 달 13일 개막하는 제78회 칸영화제 공식 부문에 초청된 한국 장편 영화는 한 편도 없다.

지난 10일 초청작 기자회견 이후 추가로 발표하는 초청작에 한국 영화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24일 공개된 추가 초청작에도 한국 영화는 없었다. 한국 장편이 칸영화제 공식 부문의 초청장을 받지 못한 건 2013년 이후 12년 만이다.

칸영화제는 1984년 이두용 감독의 ‘여인천하’, 물레야 물레야’를 상영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한국 영화를 세계 관객에게 소개했다.

봉준호, 박찬욱, 이창東, 홍상수 등 여러 한국 감독이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데에도 칸영화제의 역할이 컸다. 특히 봉준호 감독은 ‘기생충’으로 한국 영화 최초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받았고 박찬욱 감독은 심사위원대상(‘올드보이’), 심사위원상(‘박쥐’), 감독상(‘헤어질 결심’)을 가져가면서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거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칸영화제는 두 사람 외에도 다양한 한국 감독의 작품을 주목할 만한 시선이나 미드나이트 스크리닝 등 비경쟁 부문에 초대했다. 최근 몇 년간 연상호, 나홍진, 정주리, 변성현, 한준희 등 차세대 감독이 칸의 무대를 밟았다. 매년 적게는 1~2편, 많게는 3~4편의 장편이 칸영화제에서 상영된 만큼 한국 영화계는 이번 ‘0편 초청’ 사태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코로나19 이후 영화 산업이 침체일로지를 걸어온 점을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는 의견도 나온다. 투자배급사가 허리띠를 조이면서 제작 작품 수 자체가 줄어든 데다, 흥행할 여지가 큰 작품에만 투자가 몰려 예술 영화를 선호하는 칸영화제가 부를 만한 작품이 없게 됐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몇 년간 이어지던 ‘신인 감독 가뭄’ 현상이 올해 칸영화제를 계기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충무로의 다음 세대를 책임질 창작자가 부족하다는 점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한국 영화의 문제로 지적됐다. 그러나 각종 영화제 예산이 삭감되고 투자배급사의 문 역시 좁아지면서 신인 감독들이 작품을 선보일 기회는 점점 더 사라지는 추세다.

한국 영화가 옛 영광을 되찾으려면 신인 감독과 시나리오 작가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영화계는 입을 모은다.

윤성은 영화평론가는 “독립영화와 영화제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한국 영화가 발전을 거듭해 ‘기생충’이란 결실까지 볼 수 있었다”며 “젊은 창작자에 대한 정부의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역발상으로 빵 터졌다 ‘대환장 기안장’

기상천외 설정 돋보인 속박 예능…넷플릭스 ‘글로벌 톱10’ 진입

“친구, 젓가락이 없구나? 나는 숟가락이 없어. 사장님은 둘 다 없고”

기상천외한 민박집 ‘기안장’의 알바생진은 사실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월드 스타’지만, 이곳의 직원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그런 체면을 차릴 새가 없다.

모기 수준으로 몸을 써야만 출퇴근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부엌을 들락날락하며 홀로 9인분 된장찌개를 만들고, 맨바닥에 앉아 숟가락도 없이 된장찌개를 들고 마신다. 땀으로 꼬질꼬질해진 동료 알바생 지에는 젓가락 없이 고기를 퍼먹고, 사장 기안84는 그 옆에서 “인도 여행이 생각난다”며 손으로 밥을 퍼먹는다.

‘힐링 예능’의 흥수 속에서 정반대 노선을 택한 넷플릭스

새 예능 시리즈 ‘대환장 기안장’이 신선한 재미로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지난 8일 공개되자마자 4월 둘째 주차 기준(4월 5일~11일) 글로벌 톱 10시리즈(비영어권) 부문 6위에 진입했고, 한국을 비롯해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6개 국가에서 시청 순위 톱10에 올랐다. 글로벌 톱 10 시리즈에 진입한 유일한 예능이다.

‘대환장 기안장’은 기안84가 울릉도에서 청춘을 위한 민박을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다. 웹툰 작가 겸 방송인 기안84가 이제껏 본 적 없는 민박집을 직접 설계했다.

‘힐러네 민박’을 만든 정효민 PD가 연출을 맡았는데, ‘대환장 기안장’은 어느 속박 예능과는 결이 다르다.



‘힐러네 민박’이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이효리, 이상순 부부의 고즈넉한 전원생활을 담아내며 시청자들을 대리만족시켰다면, ‘대환장 기안장’은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울릉도 바다 위 숙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고생하고 망가지는 출연진의 모습을 통해 웃음을 자아낸다. 재미 요소까지 적절하게 버무린 ‘대환장 기안장’은 오랜만에 나온 고생하는 예능으로 시청자들의 반가움을 사고 있다. /연합뉴스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프론티어벤처 KIBO 02-5090011
휴먼이엔티주식회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